

캄보디아와 태국간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

조흥국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사원은 캄보디아-태국 국경을 이루는 당라엑(Dangrek) 산의 해발 550m 높이의 정상에 서 있다. 이 사원은 11세기 초 캄보디아 앙코르 왕국의 수르야바르만(Suryavarman) 1세(재위 1002-1049) 시기에 건설이 시작된 힌두교 사원이다. 이 사원과 그 인근의 영토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최근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의 직접적 발단은 2008년 7월 유네스코가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이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이에 대해 태국의 일부 언론과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자 태국의 탁신계 사막(Samak) 총리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캄보디아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반탁신계 정치인과 언론이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태국 귀속성을 주장하면서 사막 총리를 비난했다. 당시 탁신계 정부에 대한 반탁신계 세력의 맹렬한 공격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프레아 비히어 문제는 태국 국내정치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캄보디아 국민은 프레아 비히어가 태국 것임을 주장하는 태국을 비난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태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이 사원을 포함한 지역이 오랜 기간 태국의 지배 하에 있었다는 역사를 중시한다. 1431년 태국 군대의 앙코르 왕국 점령 이후 특히 캄보디아 서부와 서북부 지역은 태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 그러다가 1904년과 1907년 태국-프랑스 조약으로 캄보디아 서부와 서북부가 프랑스령 캄보디아의 영토가 되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독립하던 1954년에 군대를 파견하여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그 일대의 땅을 무단 점령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9대 3의 표결로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태국 군대는 철수했으나, 태국에서 그 판결에 항의하는 군중의 시위가 일어났다.

1962년의 판결은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일대의 당라엑 산이 어느 나라 영토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1992년 태국의 전 총리인 세니 프라못(Seni Pramot)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프라 위한(Phra Wihan: 태국에서는 ‘프레아 비히어’을 이렇게 부름)과 그 주변의 땅에 대한 관할권을 캄보디아에게 준 것이지, 산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위치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에서는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접근할 수 있는 데 비해, 태국 쪽에서는 접근이 용이하다. 그 때문에 이 사원을 찾는 관광객은 거의 모두 태국 영토를 경유한다. 2008년 7월 초 이후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양국간 논쟁이 달아오르자 그 달 17일 양국의 군대가 사원 근처의 국경에 파견되어 상호 대치하게 되었고 사원 관광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분쟁의 본질은 캄보디아에 대한 태국의 식민주의적 시각이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특히 앙코르 와트 등 캄보디아 서북부 및 서부 지역의 영토와 그 문화유산이 태국의 소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003년 1월 태국의 한 인기 텔런트가 앙코르 와트가 태국 것이기 때문에 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프놈펜에서 태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태국이 서구 식민 열강에 빼앗긴 “태국의 잃어버린 영토”라고 되어 있다. 그러한 태국인들의 캄보디아에 대한 자세에 대해 캄보디아인들은 경계심과 혐오감을 품고 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입구

프레아 비히어 분쟁이 2008년 7월 이후 터진 이후 양측간 전투로 모두 7명이 사망했다. 2009년 4월에는 교전의 와중에서 사원 밑에 위치한 시장의 260여개의 가게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약 320개 가정이 집을 잃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 측에 손해보상으로 210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2009년 8월 24일 캄보디아의 군사령부에서 양국 총사령관이 만나,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일대의

국경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했다. 태국 군 총사령관은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캄보디아 군 총사령관은 “우리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 형제 같이 평화와 단결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이 화답은 태국이 프레아 비히어 사원 근처에 주둔한 태국 군인의 수를 3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해 캄보디아 총리가 8월 22일 국경에 주둔해 있는 캄보디아 군의 수를 큰 폭으로 삭감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성사된 것이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 근처의 캄보디아 군인들

그러나 캄보디아에는 양국간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캄보디아의 야당 세력인 삼라인시(Sam Rainsy) 당은 역사적으로 오랜 뿌리를 가진 양국간 국경 분쟁이 한 번의 회담으로 해소되리라는 데 회의적이다. 삼라인시 당 소속의원인 손 츠하이(Son Chhay)는 그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려면 아세안이 개입하고 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국과 단순히 협상한다고 해서 영토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요. 태국은 자신의 군사력과 자원에 의지하여 영토를 더 많이 요구할 때까지 영토 분쟁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태국과 계속 협상해봤자 재정만 축날 뿐 실익은 없다고 보는 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적인 외교 채널과 캄보디아의 영토를 보장한 1991년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 같은 국제조약 등을 더욱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캄보디아 독립교사협회(Independent Teachers Association)의 회장인 롱 츠훈(Rong Chhun)도 태국의 약속에 대해 신뢰를 갖지 않는다. 그는 태국 정부가 과거에 군대 철수를 여러 번 약속해 놓고도 캄보디아 영토에 자국 군대를 계속 주둔시킨 사례를 지적하면서 “태국과 많은 회담이 있었으나 결과가 없다”고 말한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그 일대의 당라엑 산맥의 영토는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캄보디아에 속해 있다. 태국 정부와 사회는 한 쪽에서는 그 사원과 둘레의 지역이 캄보디아의 영토로 되어 있는 것이 비록 못마땅하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실정법상으로 캄보디아의 영토인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그 일대의 산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태국 측의 자세의 변화가 요구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캄보디아의 서부 및 서북부 지역에 대한 태국의 전통적인 식민주의적 관점이 포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이 태국이 식민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에 빼앗긴 태국의 영토였다는 역사교과서의 서술의 수정을 포함한 역사 바로잡기가 태국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Thida Saraya. *Prasat (Khao) Phra Wihan*. Bangkok: Muang Boran, 2009.
The Phnom Penh Post, 25 August 2009.